NH證, 옵티머스펀드 원금 50% 수준 선지급 할 듯

한투증, 원금 70% 조건없이 선지급
NH證, 다음주 이사회서 지원안 확정
법인 등 투자자들 "100% 보상 원해"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련의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가입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은 판매사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입자들은 100% 보상을 위해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보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4407억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하다고 믿고 자금을 맡긴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조건 없이 미리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금투업계 안팎에선 선지원 금액이 원금의 50~70% 선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287억원을 판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7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상 합의 시 추후 소송 금지 등 규정을 두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은 '조건 없는' 선지급을 약속했다"면서 "NH투자증권도 조건 없이 50% 수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급 비율에 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기 이사회에서 지원안을 확정해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소송전도 본격화했다. 법인은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100%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에이치엘비는 펀드를 판매한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이투자증권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원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모임' 카페에서 집회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집회 시기는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0일 즈음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는 "해당 상품은 프라이빗뱅커(PB)가 불완전판매한 상품"이라면서 "일부 보상은 말도 안 된다. 100% 보상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휘발유 가격 7주연속 상승세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4.0원 오른 1359.4원이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한경연, 올 성장률 -2.3% 역성장 전망

상반기 -1.7%, 하반기 -2.9%
코로나19 등 영향 IMF 이후 최저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 위기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등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올해 안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1.7%에 하반기 -2.9%로 최종 -2.3%로 점쳐졌다.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예상보다 경기둔화가 심각하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추후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소비는 -3.7%로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로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추측했다. 건설투자도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13.5%에 이를 것으로 봤다. 실질수출도 역시 -2.2% 역성장이 유력시된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p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웅 기자 juk@

사회적기업 62곳 신규등록 총 2559곳

고용부, 취약계층 등 5만명에 일자리

고용노동부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취약계층 2만9756명을 포함해 총 4만9281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과 17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교육,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담심포는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여성 대상 점자촉각책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청맥어패럴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복, 제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 가까운 극장에는 보고싶은 영화가 없는 관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배급망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 등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한 영화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아이소셜(Buy Social)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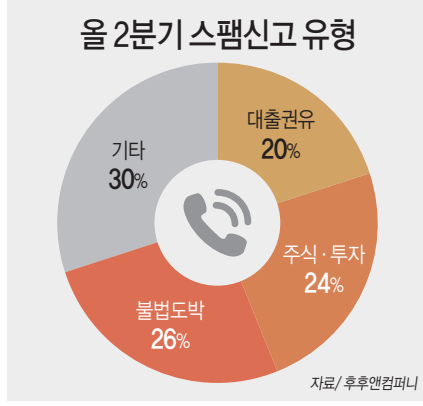
재난지원금 사기 '주의보'… 스미싱 신고 92% 급증

2분기 스팸신고 10만건 늘어 557만건
재난·지원금 등 스미싱 의심단어 등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후후앤컴퍼니가 12일 발표한 스팸차단 앱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건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1892건 증가한 총 556만7038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신고 중 '스미싱' 유형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92%가 증가한 11만661건이 신고됐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난',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의 키워드가 2분기 스미싱 의심 단어로 새롭게 등록됐다.

후후 앱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한 스팸 유형은 '불법게임 및 도박' 145만여건으로 전체 스팸 신고 건수 중 26%를 차지했다. '주식·투자' 유형이 132만여건, '대출권유'가 114만여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3개 유형의 스팸이 전체 신고 건수의 약 70%에 달했다.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 중 '010' 국번의 이동전화 번호 비중은 전체의 47%로 전년도 동기 대비 2%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스팸 메시지가 '010' 국번으로 수신되는 경우 '070' 국번이나 '02' 국번보다 경계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